



LINDENBAUM  
ORGANIZATION  
APRIL 2019

2019-1호

LINDENBAUM TIMES | [sangahlee@thelindenbaum.org](mailto:sangahlee@thelindenbaum.org)

하나된 소리,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소리  
**ONE PEOPLE, ONE HARMONY**

01

(사)린덴바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02

MIT 미디어 랩  
토드 막코버(Tod Machover) 교수 방한

03

원형준 음악감독,  
독일 시네마 포 피스 재단 국제위원회  
의원 임명





LINDENBAUM  
ORGANIZATION

APRIL 2019

2019-1호

LINDENBAUM TIMES

01

(사)린덴바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사)린덴바움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한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사)린덴바움의 개인 및 단체 후원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함으로써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후원금을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사)린덴바움은 공신력 있는 회계 기준 및 기부금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모금을 진행하며 회계 및 후원금을 관리하고 보고한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 및 감사, 예·결산 내역을 주무관청 및 후원자들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통해 (사)린덴바움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02

### MIT 미디어 랩 토드 막코버(Tod Machover) 교수 방한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의 세계적인 미디어 융합 기술연구소  
MIT 미디어 랩과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남북한 교향곡(Symphony for the Koreas)' 평화기원 프로젝트 협업 착수



왼) MIT 미디어 랩 Tod Machover 교수, 원형준 음악감독 (국립중앙박물관)

혁신의 아이콘 MIT 미디어 랩과 남북한 합동 오케스트라를 추진하는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남북 화합'이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협업에 착수한다. (사)린덴바움(대표: 이승희) 초청으로 MIT 미디어 랩의 토드 막코버(Tod Machover) 교수(63, 학과장)가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한하였다. 이번 방한을 통해 양 기관의 협업을 공식화하며, 특히 막코버 교수가 작곡 중인 '남북한 교향곡(Symphony for the Koreas)'의 취지와 명분을 알리고 향후 남북 오케스트라 구성과 합동 공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 02

## MIT 미디어 랩 토드 막코버(Tod Machover) 교수 방한

## 토드 막코버 교수, 린덴바움 예비학교 런칭 행사에서 강연

막코버 교수는 3월 19일 (화) 저녁 7시에 린덴바움 아카데미와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 학교의 예술 대학 사전 프로그램인 린덴바움 예비학교 런칭 행사에서 '지역사회와 도시, 국가를 연결하는 음악적 창의성(Musical Creativity for Connecting Communities, Cities and Countries)'을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사)린덴바움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남북한 교향곡(Symphony for the Koreas)'에 대한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였다. '남북교향곡'은 그가 가진 음악적 열정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 '도시 교향곡(City Symphony)'의 한국형 모델이다. '도시 교향곡(City Symphony)' 시리즈는 연령과 배경에 상관없는 다양한 인물의 목소리와 도시의 소리를 수집, 막코버 교수가 발명한 소프트웨어 '하이퍼스코어(Hyperscore)'를 매개로 시민들과 함께 교향곡을 완성해 나가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다. 앞으로 (사)린덴바움에서 추진될 '남북한 교향곡'도 MIT 미디어 랩에서 개발한 'Hyperscor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술과 음악이 결합된 프로젝트로써 확장될 것이다.

또한 막코버 교수는 음악이 사람들의 깊은 내면까지 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남북한 교향곡'이 다른 정치적, 외교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며 린덴바움과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 '남북한 교향곡'에 다양한 한국만의 소리들을 담아내 이 교향곡이 '음악 비빔밥(musical bibimbap)'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Tod Machover 교수,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강연



강효진 린덴바움 아카데미 원장, 원성준 린덴바움 아카데미 대표, 이승희 (사)린덴바움 대표, Tod Machover 교수, (사)린덴바움 이상아 팀장, 원형준 음악감독, 린덴바움 예비학교 학생들과 함께



LINDENBAUM  
ORGANIZATION

APRIL 2019

2019-1호

LINDENBAUM TIMES

02

## MIT 미디어 랩 토드 막코버(Tod Machover) 교수 방한

### 토드 막코버 교수, 서울 투어 및 언론사 인터뷰 등 다양한 일정 소화

한국에 처음 방문한 막코버 교수는 3월 18일 방한 일정 둘째 날부터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DMZ 투어, 국립중앙박물관, 남대문시장, 북촌 한옥마을, 세빛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을 방문하여 서울과 한국 전반에 대한 인상과 경험을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 중앙 데일리, 매일경제, 조선일보 그리고 아리랑 TV 등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린덴바움과 추진하는 '남북한 교향곡'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까지 보도된 기사 및 방송 영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오는 4월 23일 막코버 교수와 원형준 음악감독은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열리는 미디어 랩의 공식 행사를 통해 '남북한 교향곡'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린덴바움과 혁신의 아이콘인 MIT 미디어 랩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음악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코리아 중앙 데일리 \(2019.3.20\) 바로가기](#)

Innovative composer hopes to unify the Koreas: Through his work, Tod Machover has shown the power of music, technology

#### ◎ [매일경제 \(2019.3.26\) 바로가기](#)

[매경이 만난 사람] 토드 마코버 MIT 미디어랩 교수, 원형준 린덴바움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 ◎ [아리랑 TV Peace & Prosperity 방송영상 바로가기](#)

Uniting Two Koreas through Music



왼) 원형준 음악감독, Tod Machover 교수 (DMZ)



왼) 원형준 음악감독, Tod Machover 교수, 김한정 국회의원,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이승희 (사)린덴바움 대표 (예술의전당)



# 03

## 원형준 음악감독, 독일 시네마 포 피스 재단 국제위원회 의원 임명

원형준 음악감독, 독일 베를린 소재

시네마 포 피스 재단 (Cinema for Peace Foundation) 국제위원회 의원 임명



원형준 음악감독, '2019 시네마 포 피스 갈라' 참가



원형준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 지난 4월 5일 독일 베를린 소재의 시네마 포 피스 재단(Cinema for Peace Foundation)의 국제위원회 의원(International Committee)으로 임명되었다. 시네마 포 피스 재단은 영화를 통해 우리 시대의 사회, 정치, 인도주의적 이슈에 관한 인식과 해결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 특히 전쟁과 테러에 반대하는 것에 목표를 둔 국제 비영리 단체이다. 이를 위해 시네마 포 피스 재단은 국제 인권 공동체와 언론, 정치, 비즈니스 및 사회 인사들과 협력하여 영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련 초대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영화배우

모니카 벨루치, 리차드 기어, 영화감독 퓌 베크,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오스카 아리아스 등 국제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국제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원형준 음악감독의 임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초이다.

오는 7월 13일 (사)린덴바움의 주최로 DMZ에서 열리는 '하나로 예술제(One Harmony Art Festival)'는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미국 국립 청소년 합창단(National Children's Chorus), 시네마 포 피스 재단이 함께 할 예정이다. 린덴바움과 시네마 포 피스 재단은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 상영회 및 감독, 영화인,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과 관객 간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원형준 음악감독은 4월 10일 베를린 시네마 포 피스 재단을 방문하여 국제위원회 의원 임명장을 받은 후 '하나로 예술제'에 관해 재단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기타 본 행사에 관한 직접참여후원 및 기업사회공헌 관련 문의는 (사)린덴바움 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린덴바움 사무국 ☎ 02-546-5506